

클리블랜드, 파죽의 21연승

오늘 캔자스시티전 승리시 83년만에 그메이저리그 최다 연승 기록 새로 쓴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판처럼 연승을 질주 중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아메리칸 리그 최다연승 갈아치우며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연승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클리블랜드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외야수 프란시스코 린도아(왼쪽)와 로니 처존홀이 14일(한국시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한 뒤 승리를 자축하는 셰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클리블랜드는 지난달 25일 보스턴전 승리 이후 무려 2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21연승을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2002년 오클랜드의 20연승을 넘어 아메리칸리그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935년 메이저리그 최다 연승을 기록한 시카고 컵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클리블랜드는 1회 디트로이트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제이브루스의 스리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점을 추가하며 4-1을 만든 클리블랜드는 6회 수비 실책으로 2점을 내주며 4-3으로 쫓겼지만 7회 로베르토 페레스의 솔로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불펜진의 호투와 야수들의 호수비로 리드를 지켜낸 클리블랜드는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선발 마이크 클레빈저는 5%이닝 동안 수비 실책 등으로 3실점했지만 자체점은 1점에 불과하는 등 연승 분위기를 이끌었다.

메이저리그 최다 연승에 1승만을 남겨둔 클리블랜드는 연승 기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189이닝을 치르는 동안 상대에게 리드를 내준 것은 단 40이닝에 불과했다.

클리블랜드는 21경기에서 139점을 올리는 동안 35점을 내주며 경기당 득점은 6.6점, 실점은 1.7점이다.

팀 타선은 3할(0.305)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고, 41홈런을 터뜨리며 OPS는 0.939를 기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수진이다. 클리블랜드 선발진은 132이닝 동안 25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1.70의 잔물피침을 했다. 평균 6%이닝을 소화하며 1점 정도만 내준 셈이다.

불펜진도 선발진이 내려간 뒤 뒷문을 철저히 잡았다. 평균자책점은 1.26으로 선발진 못지않은 활약으로 팀의

연승을 도왔다.

클리블랜드는 오늘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83년 만에 메이저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아메리칸리그에서 가장 먼저 90승(56패) 고지를 밟은 클리블랜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 LA 다저스(93승 52패) 마저 넘어사려 한다.

/김민근기자

손흥민, 완벽한 개인기로 시즌 첫 골가동

한국인 챔스 최다득점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전에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전에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빠른 발을 활용해 50m 가량을 질주, 금세 상대 골문까지 도달했다.

이후에는 개인기가 돋보였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른바 헛다리질기로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앗은 뒤 왼발슛으로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골이었다.

손흥민은 잔디 위를 무릎으로 미끄러지는 세레머니로 기쁨을 만끽했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5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박지성(은퇴·4골)을 넘어 한국인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다.

선제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르트문트를 공략했다.

전반 42분에는 뒷공간을 파고들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관정을 받았고, 후반 6분 결정적인 오른발 슈트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유독 도르트문트에 강했던 명성 그대로였다. 손흥민은 후반 38분 무사 시소코와 교체됐다.

토트넘 홈팬들은 그라운드를 빠져 나오는 손흥민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과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묶어 도르트문트를

3-1로 제압했다.

3연패를 노리는 같은 조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아포엘(키프로스)을 3-0으로 완파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골득실에서 토트넘에 앞선 1위가 됐다.

F조의 리버풀(잉글랜드)과 세비야(스페인)는 2-2로 비겼고, F조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는 페예노르트(네덜란드)를 4-0으로 격파했다.

/김민근기자

신태용 감독, “러시아-튀니지와 2연전 해외파 위주로 치르겠다”

소속팀에서의 입지 불안으로 대표팀과 멀어졌던 일부 유럽파 선수들에게 봄날이 찾아올까.

한국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7일 러시아, 10일 튀니지와 평가전을 치른다. 내년 월드컵 개최 도시인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를 상대한 뒤 프랑스 칸으로 넘어가 아프리카팀 튀니지와 격돌하는 일정이다.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튀니지와 2연전을 해외파 위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K리그가 6월과 8월 두 차례나 리그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소집을 허용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원정길에는 K리그파들의 진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K리그의 빈자리는 유럽파들이 채울 공산이 크다.

유럽파들에게도 유럽 원정이 오히려 반갑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보다 유럽에 남아 경기를 치르는 것이 한결 편하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첫 소집 때 배제됐던 유럽파 선수들의 승선 여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

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은 신태용호 1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신 감독은 “소속팀 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선수는 뽑겠다”고 말했다. 그가 아닌 이재성(전북)과 이근호(강원)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내세웠다.

신 감독은 이청용을 2연전에 불러 직접 컨디션 점검할 계획이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드문드문한 출전으로 대표팀에서의 입지마저 위협 받고 있는 이청용에게는 새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구스부르크의 지명인 역시 마찬가지다.

새 시즌 준비 중 발목 부상을 당한 지명원은 회복 후에도 출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2연전이 중요하다.

젊은 피' 중에서는 이승우(헬라스 베로나)와 백승호(페탈라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유망주들이 즐비한 FC바르셀로나에서 힘겨운 경쟁을 펼치던 이승우와 백승호는 올 여름 눈을 낮춰 다른 팀



으로 떠났다. 수년 간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두 선수가 언젠가는 A대표팀에 입성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10월 2연전은 선수와 감독 모두에게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

/김민근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개막... 19일까지 열전 돌입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5일 개막한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생명 중심 충북에서 세계 중심 한국으로'를 구호로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 충주종합운동장 등 3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제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골볼·농구·육상·양궁·태권도·보치아·휠체어테니스 등 26개 정식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8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개회식은 15일 오후 6시 충주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태양을 품은 사탑탑을 주제로 진행된다.

1막 식전 공개행사(꽃, 바람, 길따라)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스탠트치어리딩 공연, 휠체어합창단 메들리 공연, 충주연합예술단 콜라보 공연 접자블록 퍼포먼스, 안전대 피 영상 상영 등이 선보인다.

2막 공식행사(생명과 태양의 꽃)는 개회식 톱과 선수단 입장 조형형 충주시장의 개회 선언, 이시종 충북도지

사의 환영사, 대회기 게양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대회사, 선수·심판 선서 주재공연에 이어 오후 8시 성화 점화로 행사는 절정에 이른다.

3막 식후 공개행사(빛의 축제)는 멀티미디어 쇼,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폐회식은 19일 오후 3시30분 호암체육관 특설무대에서 더해지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다.

식전행사와 식후행사(생명과 태양의 꽃)로 나눠 펼쳐진다.

오후 5시 성화가 꺼지면서 닷새 동안의 열전은 막을 내린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